



IFRS17 도입과 생명보험 성장성 지표

김세중 연구위원, 최원 수석연구원

요약

-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보험영업수익 인식 방법이 변화하면서 현재 수입보험료로 대표되는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 지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입보험료가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성장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가 실제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2023년 IFRS17 도입 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 인식방법이 단순히 수입보험료가 아닌 해당 기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료 개념으로 변경되면서, 보험영업 성장성을 이전보다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IFRS17 도입 이후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보험료의 경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산업이 본연의 기능인 개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주요 성장성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위험보험료가 중요한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임
 - 2021년 기준 생명보험산업 위험보험료 규모는 약 15.6조 원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의 약 13.1% 수준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수입보험료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변하는 지표로의 활용도를 상실하겠으나,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성장성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부각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단순한 외형확대보다는 손해율 및 유지율 예측을 정교화 함으로써 충분한 보험계약 마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위험보험료 성장 둔화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 성장성 개선을 위한 전략적 상품개발 및 유지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영업 성과 향상을 위한 수익률 관리 노력이 요구됨



1. 검토배경

- 현재 회계기준에서는 수입보험료(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의 합)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성장성 지표로 수입보험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가 실제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음
 - 수입보험료에는 보험서비스 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담보를 통해 발생한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을 별도로 살펴보기 어려움
 - 또한 수입보험료는 일정 기간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수익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¹⁾
 - 예를 들어, 일시납²⁾ 보험료를 모두 해당 기간 보험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미래에 제공될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됨
 - 한편, 수입보험료에는 기존에 판매되었던 보험계약의 계속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신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의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 그러나 2023년 IFRS17 도입 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 인식방법이 단순히 수입보험료가 아닌 해당 기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료 개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 지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2023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인 IFRS17과 IFRS9이 보험회사에게 적용될 예정임³⁾
 - 현재 회계기준(K-IFRS 제1104호)에서는 재무상태표⁴⁾의 보험부채를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K-IFRS 제1117호)에서는 보험부채를 보고시점의 현행가치로 측정함
 - 따라서 변경된 재무상태표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손익계산서⁵⁾의 보험영업수익 인식방법 역시 변경될 것임
 - 구체적으로, 보험료 흐름을 중심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던 현금주의 방식에서 해당 기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될 것임
- 본고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영업수익 인식 방법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험회사들이 주목해야 할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1) 보험서비스 제공 흐름보다는 현금흐름인 보험료 수입을 중심으로 보험영업수익을 인식함

2) 보험기간과 관계 없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를 의미함

3)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은 K-IFRS 제1117호이고, IFRS9에 해당하는 국내 회계기준은 K-IFRS 제1109호임

4) 특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자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의미함

5)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를 의미함



2. IFRS17 도입과 보험영업수익

-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생명보험회사들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자본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보험부채는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계약서비스마진(CSM)의 합으로 계산됨
 - 현재 회계기준(K-IFRS 제1104호)의 보험부채는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비금이며, 원가로 평가되고 있음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의 보험부채는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이하 'CSM'), 위험조정(Risk Adjustment, 이하 'RA'), 최선추정부채(Best Estimate Liability, 이하 'BEL')로 구성되며, 시가로 평가됨⁶⁾
 - 즉, 현재 기준에서는 금리 등이 변동할 경우 자산과 자본은 시가로 평가되어 변동하고 보험부채는 원가로 평가되어 변동하지 않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자산·자본·부채가 모두 시가로 평가되어 변동하게 됨

〈그림 1〉 IFRS17 적용 시 재무상태표의 보험부채 변화



자료: 한국회계기준원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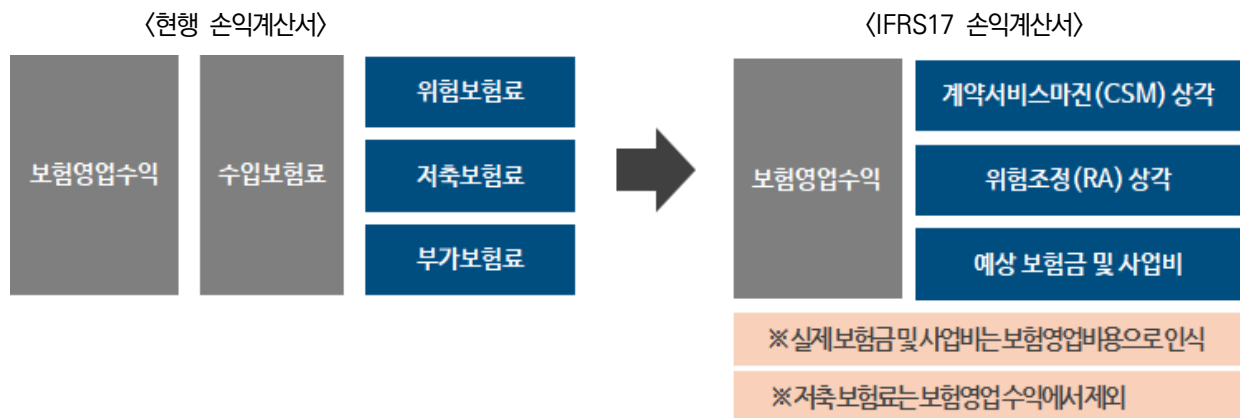
-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되면서, 보험영업수익의 인식 방식 또한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수익만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될 것임⁷⁾
 - 현재 원가 기준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에서는 보험서비스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영업수익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보험료 흐름을 중심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현금주의 방식(Cash-basis accounting)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과거 판매된 보험계약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가 기준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에서 이를 고려하기가 어려움
 -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수익만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이를 발생주의 방식(Accrual-basis accounting)이라 함
- 구체적으로 새로운 회계기준 하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인식하게 될 보험영업수익은 계약서비스마진(CSM)과 위

6) CSM은 미래에 인식하게 될 장래 이익의 현재가치를, RA는 보험계약을 최선으로 추정된 부채로 모든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을, BEL은 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를 의미함
 7) 현금흐름인 보험료 수입이 아닌 보험서비스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영업의 수익을 인식함

험조정(RA)의 상각분에 예상보험금 및 예상사업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저축보험료는 보험영업수익에서 제외됨

- 보험상품 판매 시 전 기간에 걸친 보험부채로 계상된 계약서비스마진(CSM)과 위험조정(RA)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상각분을 해당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시에 해당 기간의 예상보험금 및 예상사업비 역시 보험영업수익에 포함됨
 - 다만, 해당 기간 실제 지급된 보험금 및 사업비는 보험영업비용으로 인식되므로 해당 기간 예상보험금 및 예상사업비(수익)와 실제보험금 및 실제사업비(비용)의 차이가 보험영업이익으로 인식됨
- 다시 말하면, 보험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인 보험부채가 줄어들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보험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도 인식하는 방식임
- 이때 보험서비스 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저축보험료는 보험영업수익에서 제외됨

〈그림 2〉 IFRS17 적용 이후 보험영업수익 변화



자료: 한국회계기준원을 재구성함

- IFRS17 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작성방식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성과를 이전보다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저축보험료는 투자영업 성과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 수익만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 장기 계약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익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난해하였던 이전과 달리, 일정 기간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익을 구분하기가 용이해질 것임
- 그동안 보험회사들의 성장성 측정의 주요 지표로 수입보험료가 활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위험보험료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보험영업수익인 전체 수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

으나, 향후 보험영업수익에는 저축보험료가 제외될 것임

- 또한 새로운 기준에서의 보험영업수익은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 가운데 해당 기간에 적용되어야 할 CSM 상각분, RA 상각분,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움⁸⁾
- 결국, 현재 위험보험료 수준이 향후 인식하게 될 보험영업수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므로, 위험보험료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성과를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 매출 개념을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위험보험료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험영업 성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것임



3. 위험보험료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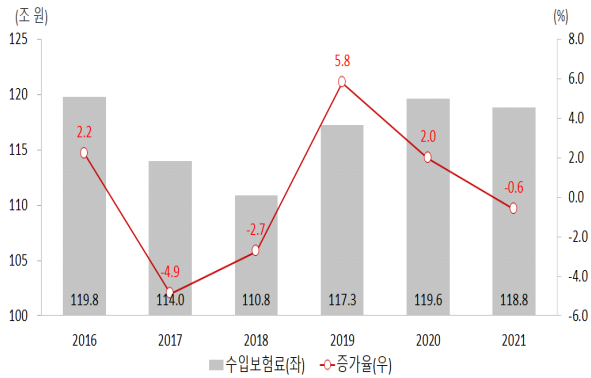
- 현재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을 통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입보험료와는 별도로 위험보험료와 초회보험료 보조지표를 활용해 왔음
 - 위험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 담보를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의미하며, 수입보험료와 달리 위험담보에 해당하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평가하기 용이함
 -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 시 처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신계약과 관련한 영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초회보험료의 경우 납입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연납화 초회보험료⁹⁾ 지표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음
 - 동일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납입 계약은 초회보험료 금액이 적은 반면 일시납 계약은 초회보험료 금액이 많음
- 2021년 기준 생명보험산업의 위험보험료 규모는 약 15.6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특별계정을 포함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의 약 13.1% 수준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위험보험료는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전통적 종신보험 상품의 신규 판매 확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임
 -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저축 및 투자 수요 변동성 확대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과 달리 위험보험료 증가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음

8) 보험회사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계변경을 적용하여 명확한 CSM 및 RA 상각분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며, 회계제도 변경으로 산정된 보험영업수익은 대부분 각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보험료 수준에 준할 것으로 추정됨

9) 월납, 3월납, 6월납 보험료에는 각각 12, 4, 2를 곱하고, 연납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그대로, 일시납 보험료에는 일반적으로 10을 나눈 값을 사용하며, 각각 계산된 보험료의 합계 값을 통해 신계약에서 창출된 1년 간 보험료 수입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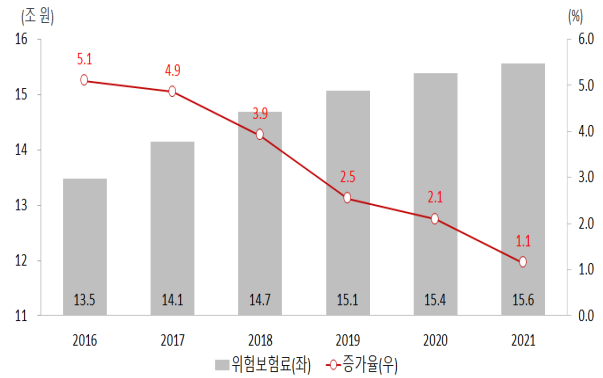
- 특히, 거시경제 환경 또는 제도 변화로 인해 저축 및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는 일시납 보험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입보험료 증가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그림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회사 상품 포트폴리오 특성상 차이가 있으나 주로 순수 보장성보험이면서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보험상품들의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 비중은 질병 및 상해 위험을 주요한 담보로 하고 있는 보장성보험 상품들이 주로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건강 및 사망 위험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종신보험·CI보험¹⁰⁾의 비중이 높았고, 마지막으로 생존과 저축을 주요한 담보로 하고 있는 연금과 저축보험의 비중은 매우 낮았음
-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지만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로 구성되어 있어 질병 및 상해보험에 비해 위험보험료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과 CI보험 시장 확대 여력 약화 등으로 위험보험료 성장세가 둔화됨

-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향후 보험영업에 있어서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질병 및 건강보험에 대한 판매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위험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종신보험과 CI보험의 경우 고령화 가속화 및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10)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함



4. 시사점

- IFRS17 도입 이후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보험료의 경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보험영업의 성장성과 투자영업의 성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각 영업성과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생명보험산업이 본연의 기능인 개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주요 성장성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위험보험료가 중요한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임
 - 보험회사의 단기 성장성 지표로 활용되어 온 초회보험료의 경우, 신계약 판매와 관련한 영업력을 평가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생명보험산업 성장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수입보험료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변하는 지표로의 활용도를 상실할 수 있겠으나, 저축보험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성장성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부각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저축보험료 확대를 통한 외형확대 전략을 지양하고 위험보험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은 주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인 수입보험료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저축보험 상품의 판매를 확대한 바 있음
- 한편 최근 위험보험료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 성장성 개선을 위한 전략적 상품 개발 및 유지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영업 성과 향상을 위한 수익률 관리 노력이 요구됨
 - 향후 보험영업 성장성 향상을 위해서 수입보험료 규모 보다는 위험보험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상품 설계 시 보험계약 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 마진이 충분한 보험계약의 유지가 보험영업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조기 해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손해율과 해지율 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임
 - 한편 저축 및 투자 보험계약과 관련한 영업성과는 수익률 개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 노력이 요구됨